

2. 순천 소작쟁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1920년대 말 현재 순천군의 총인구는 11만여 명이었으며,¹⁾ 그 가운데 농업인구는 67% 정도였다. 그리고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논면적은 1만 3,626정보, 밭의 면적은 4,871정보였으며, 낙안평야의 쌀은 질이 좋기로 전국에 소문이 나 있었다.²⁾ 1931년 현재 총경지면적 1만 8,015정보 가운데 소작지면적은 1만 1,968정보(전체 경지면적의 66.4%)였으며, 전체 농가호수 1만 9,185호 가운데 소작농가는 1만 1,678호(전체 농가의 60.9%)였다. 이는 순천군이 주변의 다른 군에 비해 지주제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전남의 다른 군과 비교하면 순천의 소작지 비율은 장성(72.6%), 광양(71.3%), 나주(69.2%), 함평(67.5%), 광주(67.0%) 다음으로 높았으며, 소작농가 비율은 화순(63.6%)과 함평(61.2%) 다음으로 높았다.³⁾

또한, 순천군청 권업과 조사에 따르면 1922년 현재 지주는 1,424호, 자작농 1,559호, 자작 겸 소작농 7,028호, 소작농 6,568호, 머슴 3,230명이었다.⁴⁾ 그러나 1931년 말에 이르면 자작농은 704호, 자작 겸 소작농은 6,157호, 소작농은 1만 1,014호, 머슴은 4,711명으로 하강분해현상을 보였다. 일제의 조사에 따르면 1931년 말 순천군의 경우 군내 지주의 소작지는 72%, 도내 지주의 소작지는 20%, 도외 지주의 소작지는 8%였다. 전남 평균은 각각 65%, 22%, 13%, 전국 평균은 69%, 18%, 13%였다. 순천지역의 경우는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 평균보다 군내 지주, 즉 재지주수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⁵⁾

순천군에 거주하는 대지주(100정보 이상 지주)는 대부분 조선인이었으며, 이들은 여수·곡성·광양·구례·고흥지역 등지에도 많은 소작지를 가지고 있었다. 1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일본인 대지주는 1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주제의 발달로 순천지역의 소작농민들은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주의 소작인 수탈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농가수지 적자폭도 그만큼 늘어났다. 남선농민회연맹회의 조사에 따르면, 1923년 현재 순천군 14개 면 소작농가의 농가수지는 소작료를 4할로 할지라도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 평균하면 소작인의 경우 매두락 약 2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⁶⁾

농가경제 피폐현상은 1930년대 초반 농업공황기에 더욱 극심하였다. 1931년 현재 순천군에는 704호의 자작농 가운데 339호가, 6,157호의 자작 겸 소작농 가운데 2,612호가, 1만 1,014호의 소작농가 가운데 8,442호(전체 소작농가의 77%)가 춘궁에 시달렸다고 한다. 게다가 집이나 집터를 빌려서 생활하는 소작인수도 1,577호에 달했으며, 농업소득만을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 임금노동에 종사하던 소작농민도 7,478호(전체 소작농가의 68%)나 되었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순천지역의 소작농은 보통 57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다.⁷⁾

한편, 순천지역의 지방정치구조가 1920년대 초반에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1) 전라남도, 『道勢一斑』, 1931, 8~9쪽.

2) 『全羅南道事情誌』, 1930, 584~588쪽.

3) 大和和明, 『1920년대 전반기의 한국 농민운동』, 『항일농민운동 연구』, 동녘, 1984, 124쪽.

4) 『동아일보』 1923. 4. 9.

5) 조선총독부 편, 『조선의 소작관행(속편)』, 2~4·113쪽.

6) 『동아일보』 1923. 3. 20. 上畝 1두락(200평) 수입은 33원, 지출은 28원 20전, 이익금은 4원 80전이었다. 中畝 1두락의 수입은 22원 40전, 지출은 23원 65전, 차인 損金은 1원 25전이었다. 下畝 1두락의 수입은 11원 30전, 지출은 19원 25전, 차인 손금은 7원 25전이었다.

7) 조선총독부 편, 『조선의 소작관행(속편)』, 116·102·147쪽.

1920년 7월에 창립된 ‘순천지방청년회’⁸⁾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순천지

순천 소재 조선인 지주

지주명	주소지	소유면적			
		논	밭	기 타	합 계
김봉규(金奉珪)*	순천면	65	2	74	141
우규환(禹珪桓)	순천면	70	16	67	153
우종환(禹鍾桓)	순천면	53	21	57	131
우기환(禹沂桓)*	순천면	110	12	47	169
김회산(金會山)*	순천면	132	5	5	142
김병옥(金丙玉)*	순천면	77	5	26	108
김학순(金學洵)*	순천면	140	14	171	325
정권현(鄭權鉉)	순천면	124	9	66	199
서병규(徐丙奎)*	순천면	207	7	140	354
김종주(金從柱)	서 면	55	3	48	106
박창서(朴彰緒)*	황전면	283	11	109	403
박승직(朴勝稷)*	황전면	76	4	54	134
성정수(成禎洙)*	순천면	79	4	39	122
김종필(金鍾弼)*	순천면	306	10	1	317
김종익(金鍾翼)*	월등면	825	47	255	1,127
선암사(仙岩寺)	쌍암면	119	8	1,328	1,455
송광사(松廣寺)	송광면	101	13	1,563	1,677
최복철(崔福哲)	별량면	233	46	15	294
최복선(崔福先)	별량면	158	1	16	175
김재창(金再昌)*	별량면	103	3	75	181

비고 : *표시가 있는 지주는 신문지상을 통해 분쟁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른바 ‘악지주(惡地主)’ 들임.
출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통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190~210쪽.

8) 『동아일보』 1920. 9. 1.

방청년회의 간부구성을 보면 대체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확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유지청년

서병규(徐丙奎) : 지방청년회 발기인으로 창립대회 임시의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대지주이며 초기에는 지세를 반환하는 등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후 농민대회연합회가 악지주로 지목하였다.(『통아일보』 1923. 9. 30.) 면협의원을 역임하였다.

성정수(成禎洙) : 대지주로서 지방청년회 창립대회에서 축사를 했다. 명치법과를 졸업했으며, 금융조합장·총독부경부와 진도군수·도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양수(金良洙) : 지방청년회 창립대회 규칙초안을 낭독했다. 초기에는 지세를 탕감해주는 등 협조적이었으나 이후 악지주로 손꼽혔다.(『통아일보』, 1923. 3. 29.)

김병욱(金秉旭) : 지방청년회 교육부장으로 초기에는 지세를 반납하는 등 협조적이었으나 이후 악지주로 손꼽혔다.(『통아일보』, 1923. 3. 29.)

김성초(金成初) : 지방청년회 실업부장으로 초기에는 지세를 반환하고 소작료를 탕감해주는 등 협조적이었으나 이후 악지주로 손꼽혔다.(『통아일보』, 1923. 5. 17 · 1923. 11. 11.)

김병옥(金丙玉) : 지방청년회 의사부장을 맡았으며, 해룡면농민대회에서 악지주로 규탄당했다.(『조선일보』 1923. 10. 27.)

혁신청년

이영민(李榮珉) : 1926년경 44세, 농업, 동아일보 순천지국 기자, 순천지방청년회 의사부장, 남선농민회 연맹 간부, 순천농민연합회 집행위원, 순천무산자동맹회 집행위원, 순천면노동연합회 집행위원, 전라노동연맹회 집행위원, 남선노동동맹 창립총회 전형위원, 조선공산당 전남도기관 세포책임(징역 1년), 순천농민조합 집행위원

이창수(李昌洙) : 1926년경 40세, 시대일보 순천지국장, 순천지방청년회 강론부장, 순천농민연합회 집행위원, 남선농민회연맹 간부, 순천노동연합회 집행위원, 순천무산자동맹 집행위원, 경남노동운동자 신년간친회 참석 강령기초위원, 조선공산당 전남 도기관 당원(징역 1년), 보성노동조합 간부

김영숙(金永淑) : 순천지방청년회 사찰부장, 남선농민연맹회 간부, 순천농민연합회 집행위원, 경남노동운동자간친회 참석

이상 창립기의 주요 활동가를 보면 순천지방청년회는 서병규나 김양수, 김병욱, 김성초로 대표되는 지주 출신의 ‘유지청년’들과 이영민, 이창수, 김영숙으로 대표되는 ‘혁신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1923년경까지는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사상적 격차나 대립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조직결성 이후 지방청년회는 강론부·교육부·운동부·사찰부·사업부·의사부 등의 부서를 두고 공동답 경작, 청년야학 개최,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체육행사 개최, 자선활동 등을 전개하였다.¹⁰⁾ 이는 당시 지방청년회가 농사개량과 지덕체(智德體) 함양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924년 초 지방청년회 내부에서 혁신청년들이 이탈하여 새롭게 무산자동맹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양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점차 심해졌다. 무산자동맹회는 1924년 4월 말 총회에서, 순천에 있는 각종 단체에 관한 건, 반동세력에 대한 건 등을 결정하였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무산자동맹회가 스스로 순천지역 사회운동의 지도부를 자처하고 있었다는 점,

9) 『통아일보』 1920. 9. 1 · 1921. 4. 22 · 1922. 5. 2.

10) 각 시기 총회 결의 참조. 『통아일보』 1920. 9. 1 · 1921. 4. 22 · 1922. 5. 2 · 1922. 10. 20.

그리고 이류(異類)단체에 대한 박멸을 결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우리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경우 우리 회원 일동은 단결의 힘으로 매장(埋藏) 또는 박멸(撲滅)에 노력할 것” 등을 결의하기도 하였다.¹¹⁾

1924년을 경계로 유지청년과 혁신청년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자 소작인조합운동을 함께 했던 지도급 인물 내부에서도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음의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926년의 면협의원 및 학교평의원 선거에 상사면농민대회 회장을 역임한 최익연(崔益連 : 전라노동연맹회 발기대회 참석, 남선노동동맹회 창립대회 참석)과 서면농민대회 간부였던 임태유(任泰攸 : 농민대회연합회 집행위원, 남선농민회연맹 선전부위원, 조선노동총동맹 창립대회 참석)가 면협의원과 학교평의원으로 나란히 당선되었다.¹²⁾ 그리고 이영민과 이창수가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나란히 검거되었다. 1922년 말부터 1925년경까지 순천 지역의 소작인조합운동을 주도한 이들이 1920년대 중반 이후 이처럼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순천지역의 소작쟁의는 경제적 요인들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따라 그 추이가 좌우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첫째, 태동기(1922~1923)는 총독부권력과 유지집단의 지지 후원, 그리고 혁신청년집단의 지도로 소작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이다. 둘째, 고조기(1924~1925)는 혁신청년집단의 지도로 운동이 고조되면서 지주들과 대립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셋째, 침체기(1926~)는 총독부권력과 유지집단의 대공세로 혁신청년집단이 대거 검거되고, 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급격히 축소되는 시기이다.

11) 『조선일보』 1924. 5. 1.

12) 藤村德一, 『朝鮮公職者名鑑』, 1927, 42·167쪽.

